

# 한국음악자료 분류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Music Materials

한 경 신(Kyung-Shin Hahn)\*\*

### 목 차

1. 서론	분진개표
2. 한국음악과 한국음악학	4. 3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음악 자료분류법
2. 1 한국음악과 한국음악의 체계	4. 4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음악분류법
2. 2 한국음악학과 한국음악학의 체계	5. 한국음악자료 분류의 새로운 전개
3. 음악자료의 유형	5. 1 분류의 전개원칙과 방법
4. 도서관에서의 한국음악 분류의 실태와 제문제	5. 2 한국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표
4. 1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679 國樂	6. 결론
4. 2 Dewey 십진분류법 ; 동양관계세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한국음악에 관한 각종 다양한 자료를 융통성있게 수용하면서 학문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보편성을 갖는 한국음악분류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배경으로서 한국음악 및 한국음악학의 체계와 각종 음악자료의 유형을 살펴보고, KDC의 한국음악 분야를 비롯 현재 도서관 및 각종 관련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음악 관련 분류표들을 분석하여, 조사 분석된 분류전개에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문제점을 찾아 이를 기초로 각종 한국음악 관련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한국음악 분야의 분류표를 전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dealistic scheme for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music. The ideal classification of Korean music should cover as much knowledge and materials of Korean music as possible. In this study, therefore, Korean music, Korean musicology and music materials were examined first as the backgrounds. Then classification schedules for Korean music including 679 Korean music of KDC were selected, and their expansion aspects and the problems were analyzed. The conditions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n ideal classification schedule of Korean music were sought through reanalyzing the problems found in these existing classification schedul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 new classification schedule of Korean music was proposed.

\* 본 논문은 1996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8년 3월 26일

## 1. 서론

韓國音樂, 즉 國樂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고유음악 또는 고전(전통)음악을 말 하나, 넓은 의미로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악활동을 가르킨다. 1970년대 이후 韓國學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한국학 연구는 전례없이 발전하여 왔으며, 한국음악의 연구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리하여 한국음악에 관한 각종 연구도서 및 논문, 악보, 음반 및 테이프 등의 녹음자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4년 한해동안 발간된 국악관련저작물 총수는 910건, 국악관련 음향 및 영상자료는 총 198건 298매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국악연감, 1995) 따라서 한국음악 분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학문적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갖는 한국음악 자료의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음악 자료의 조직을 위한 分類 研究는 우리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韓國音樂의 分類는 우리나라의 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에서 679 國樂(Korean music)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한국음악 분류는 韓國音樂 및 韓國音樂學의 學問的 입장에서 볼때 너무 체계가 없이 전개되어 있어 분류자와 이용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악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게 된다. 따

라서 韓國音樂 分野를 중요하게 다루는 각종 기관이나 도서관에서는 각각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음악에 관한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고 전문지식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음악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합리적인 文獻分類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韓國音樂資料의 分類에 관한 기존의 研究는 李輔亨의 “韓國傳統音樂資料의 十進分類方法論”뿐이다. 이 연구는 KDC의 한국음악 자료 분류방법에 체계가 없음을 인식하고, 한국전통음악의 자료·악보·음반·녹음 등의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음악 자료의 십진분류법이 절실히 필요함을 전제, 도서관과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한국음악의 연주장소·연주계기·연주자 신분 등에 의한 분류법이나 혹은 악기편성 및 장르에 의한 분류법에 의한 十進分類가 가능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韓國音樂의 분류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提案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보형, 1975, 41-49)

본 연구에서는 한국음악의 다양한 음악자료를 융통성있게 수용하면서 한국음악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보편성을 갖는 분류표를 제시하므로써 첫째, 韓國音樂의 體系를 정리해봄과 동시에 둘째, 이를 기초로 한 보다 세분된 한국음악 주제분류표 전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셋째, 기존 분류표, 특히 KDC의 韓國音樂 분야 개정의 한국음악 분류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넷째, 나아가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의 음악을 세계에 알

리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한국음악과 한국음악학

### 2.1 한국음악과 한국음악의 체계

韓國音樂(Korean music)이란 한국민족이 만든 음악의 총칭으로, 흔히 國樂이라 불리운다. 音樂은音を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소리를 가지고 조직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樂이라 했는데 이것은 악기와 악기를 거는 걸이(架)의 상형문자이다. 또한 音의 울림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도덕·윤리와 관련지어 禮樂이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항 이후 1880년대에 서양음악을 우리의 전통음악과 구별하여 洋樂이라 불렀으며, 音樂이란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910년 이후부터이다.

音樂은 시대나 민족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은 각 시대나 민족이 어떻게 독자적인 형식으로 소리(sound)를 포착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음악 문화는 아주 다양하며, 韓國音樂은 바로 이러한 세계 음악문화의 한 갈래가 된다. 따라서 韓國音樂은 한국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독특한 음악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음악활동의 양상을 볼 때, 韓國音樂이란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國樂의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한편 오늘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우리민족의 음악이라는 뜻으로도 사

용될 수 있다.(한국음악사전, 1985, 414)

音樂은 원래 독립적인 예술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古代에는 주술·마술·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종교를 비롯한 윤리·도덕·冠婚喪祭 및 사교(社交) 등과 관련을 맺으면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존속하여 왔는데, 韓國音樂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음악의 역사는 학문적으로 서양의 중세시대를 본격적인 역사의 출발점으로 본다.(Donald Jay Grout & Claude V. Palisca, 1988) 古代의 음악에 대한 기록은 음악에 대한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인 사고(思考)뿐 실제적인 문헌적 史料, 악보(筆寫本) 및 실제 음악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古代의 음악연구는 당시의 그림이나 조각, 기록, 전승 및 악기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음악 역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언급은 여러 음악학자들에 의해 주로 그들의 음악사 개설서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들의 시대구분은 각인각색이며, 대체로 역대 왕조에 의한 시대구분이 지배적이거나 이들 구분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음악사는 한민족이 이루어 놓은 음악활동의 역사로서 우리 음악사의 시대적 특징과 음악양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치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송방송 교수에 의한 7개의 시대, 즉 향악의 형성과 발전시대, 향악의 전성시대, 당악·아악의 수용시대, 아악의 정비시대, 민속악의 새 양상시대, 양악의 수용시대, 민족음악의 모색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송방송, 1983, 181-182)

첫째, 향악의 형성과 발전시대(상고시대-668년)는 한민족음악이 형성·발전된 시기이다. 즉, 한민족의 형성과 함께 그에 따르는 음악활동을 했을 때부터 삼국이 통일되기까지로, 성악·기악·무용이 종합예술형태로 연주되다가 차츰 독립된 예술형태로 분리되기 이전까지이다. 초기 원시 공동체사회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노래와 춤은 차츰 왕족중심의 국가형태를 갖추에 따라 전문음악가 및 향악기의 출현, 서역악기의 수용,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삼국음악인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성있는 삼국의 음악문화로 발전, 삼국의 민족음악 문화인 향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이루어졌다. 후기에는 귀족사회의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신라의 음성서와 같은 왕립음악기관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둘째, 향악의 전성시대(668-935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문화를 흡수하여 통합된 한민족의 음악문화인 향악의 절정을 이룩한때부터 당악의 전래로 향악과 당악이 양립 병존할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三絃이 뿌리를 내리고 향악의 대표적인 三竹이 등장함으로써 특히 기악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왕립음악기관인 음성서의 발전은 향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문음악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높게 되었다. 그리고 불교음악문화의 융성에 따라 새로운 풍의 범패가 전래되고 당악이 차츰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악의 뚜렷한 성장발전이 이루어진 한민족음악문화의 전성시기이다.

셋째, 당악·아악의 수용시대(935-1392년)는 대륙음악의 수용시대로 통일신라시대 후반 차츰 뿌리를 내린 당악의 뚜렷한 성장과 12세기 초 아악이 전래되어 발전된 시기이다. 통일신라시대의 三絃과 三竹은 그대로 고려의 향악기로 전승되었고, 고려 말기의 고려가요는 향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악이 고려 궁중에서 향악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 있는 등 당악과 아악의 수용·발전으로 향악의 전통이 당악과 아악의 그늘에 가려질뿐 한 시기이다.

넷째, 아악의 정비시대(1392-1592년)는 새로운 기보법의 하나인 井間譜의 창안과 많은 악곡이 창제된 시기이다. 새로운 악곡의 창제와 이들에 대한 기록, 중국의 각종 음악이론서를 근거로 한 아악의 정비 및 아악기의 제조 등이 이루어졌다. 당시 난립했던 음악기관들은 장악원으로 통합, 음악행정과 연주활동을 분리하여 악공과 악생의 사회적 신분을 법률적으로 제도화시켰다. 그러나 음악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이전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당악은 수용과정에서 향악화되어 향악과 당악은 우방악으로 취급되고 아악은 정비되면서 좌방악의 자리를 지키게 됨에 따라 이 시기를 좌방악과 우방악의 양립시기라 부른다.

다섯째, 민속악의 새 양상시대(1592-1894)는 당시 장악원에서 전승되던 향악·당악·아악의 전통은 겨우 현상유지로 어려웠던 반면에 오늘날 전통음악에서 다루는 여러 장르를 포함한 민속악의 등장과 정악의 발달 시기이다. 민속악 중에서는 특히 성악예술의 정수인 판소리의 등장과 기악예술의 꽃인 산

조의 출현 그리고 정악 중에서는 성악쪽의 가곡과 기악쪽의 영산회상이 현저하게 성장 발전하였다. 특히 이들은 양반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폭넓게 확대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식인들에 의한 많은 거문고악보의 전래 및 그 고악보들의 해독에 따른 음악양식의 변천이 뚜렷하였다. 따라서 당시 음악예술의 양식적 변천을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양악의 수용시대(1894-1945)는 서양음악의 등장과 수용시기로 양악대의 출현과 이에 따른 국악의 급진적인 위축시기이다. 19세기 후반 서양문물과 함께 서양음악이 한반도에 들어와 찬송가·창가·양악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양음악은 양악대의 연주활동을 통한 기악과 기독교 선교사업 및 새로운 학교교육을 통한 찬송가와 창가라는 형태의 성악이 급속히 퍼진 반면, 한민족의 전통음악은 국악이란 이름아래 축소되어 일반시민 자제에게 제한된 국악교육을 통해 겨우 명맥만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악공의 세습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악인의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또한 현대식 무대공연장의 출현으로 창극이 등장, 창극활동에 의해 새로운 소재를 전통적인 창법에 의거한 창작이라는 측면으로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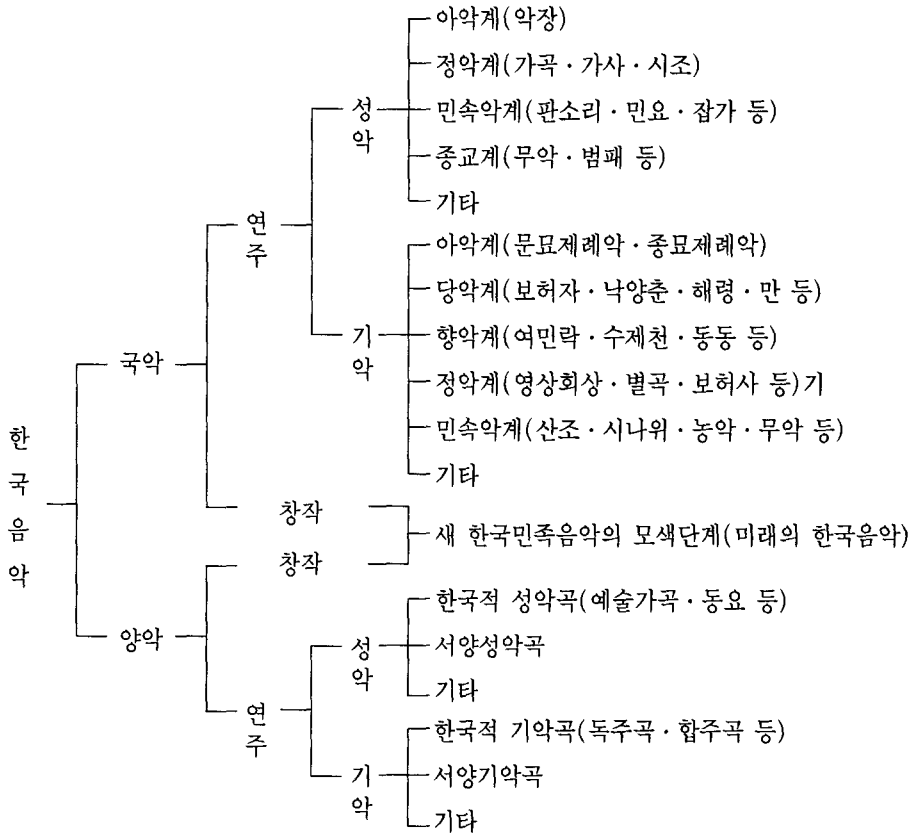
일곱째, 민족음악의 모색시대(1945-현재)는 한국음악의 방향모색시대로 해방이후의 한국음악을 말한다. 이 시기는 한국국악학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국악의 학문적 연구활동, 전문음악교육기관인 음악대학 내의 국악과 설립 및 이에 따른 교육,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문국악연주기관들의 출현 등

사회와 학계의 관심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음악문화는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 및 보급과 민족문화의 개발 및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전통음악인 국악과 서양음악인 양악의 공존속에서 민족음악문화의 수립이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한국민족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세계 속의 한국상을 부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音樂은 理論 중심적인 대부분의 다른 학문과는 달리 理論에 實踐이 동반되는 학문으로 크게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론은 모든 음악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활동으로 音樂學이라 불리운다. 실천은 크게 창작(작곡)과 연주로 나뉜다. 즉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로 분류한다. 또한 연주는 표현매체에 따라 최초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인 성악과 인간에 의해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악인 기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音樂의 體系 중 다음에 다룬 이론을 제외한 실천부문을 韓國音樂에 적용해 보면 <표 1>과 같다.(송방송, 1984, 580)

器樂은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말한다. 즉, 악기라는 外在的인 매체에 육체의 일부가 작용하므로 音量·音色·音域 등에서 성악보다 폭넓은 표현이 가능하고,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기악형식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國樂器는 상고시대 변진(弁辰)에서 사용되었던 현악기를 드는데, 그 악기의 형태는 분명치 않으나 가야금이나 거문고의 전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전라도 광산군의 기원전 1세기 철기시대

〈표 1〉 韓國音樂의 體系



유적지에서 울림통과 열두개의 현을 맨 자국이 완전한 목제현악기가 발굴되므로써 제조연대가 확인되면 최초의 국악기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삼국시대 鄉樂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등장했고, 한편西域과 중국의 악기들이 고구려와 백제에 수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악기를 수용하여 三絃·三竹의 전통을 확립하였고, 이들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鄉樂器의 뿌리 구실을 하였다. 唐과 宋의 俗樂器들이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한반도에 소개되어 唐樂器로 정착되었고, 唐樂器

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부가 鄉樂化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宋의 大晟雅樂이 고려시대에 소개되므로써 雅樂器가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鄉樂·唐樂·雅樂의 연주에 쓰인 여러 악기들은 「樂學軌範」에 자세하게 圖說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잘 계승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는 새로운 唐樂器·鄉樂器·雅樂器들이 樂器圖監과 樂器造成廳 같은 기관에서 새로 제작되기도 하였다.(한국음악사전, 1985, 257)

이와 같이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국

악기는 그 수가 확대되면서 오늘날까지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개량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관현악단의 편성과 새로운 창작음악 양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악계에서는 악기개량의 필요성이 논의 되기 시작, 1960년대부터는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악기의 분류방법은 악기의 재료·발음기구·형태·연주형태·연주법 및 연주하는 음악 등 각기 그 입장이나 시대에 따라 편의적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한 분류법만으로 악기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國樂器 分類는 각 악기가 쓰이는 음악 및 유래에 따른 향악기·당악기·아악기의 삼분법으로 「高麗史」樂志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조선 초기 성종 때의 「樂學軌範」에서 그대로 전승, 모든 국악기를 3부 66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표 2>와 같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편, 1981, 49-

149)

다음으로는 1908년 우리나라 古今의 문물제도 典章을 분류, 집록한 「增補文獻備考」에서 처음으로 中國의 악기재료에 의한 악기분류법인 8분류법을 도입, 모든 國樂器를 8음 61종으로 분류하였는데 <표 3>과 같다.(金鍾洙譯註, 1994, 176-249) 이 분류는 「韓國國樂器圖說」 및 「韓國樂器大觀」등에서 國樂器 分類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양의 전통아래 내려온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주법에 의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3분류법이나 발음원리에 의한 Hornbostel-Sachs의 鉉鳴樂器, 氣鳴樂器, 體鳴樂器, 膜鳴樂器의 4분류법(Erich Moritz von Hornbostel & Curt Sachs, 1914, 553-590)을 채택하여 우리의 國樂器를 분류하기도 한다. 먼저 서양의 연주법에 의한 3분류법과 1908년 「增補文獻備考」에서의 8분류법을 비교해 보면 1) 관악기에는 竹部, 木部, 匏部, 土部, 金部로 분류된 악기의 일부가 포함되고 2) 현악기에는 絲部, 金部로 분류된 악기가 포함되어 擦絃, 撥絃,

<표 2> 樂學軌範에서의 國樂器 分類

1. 雅部樂器	특종(特鐘), 특경(特磬), 편종(編鐘), 편경(編磬),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뇌고(雷鼓), 영고(靈鼓), 노고(路鼓), 뇌도(雷鼓), 영도(靈鼓), 노도(路鼓), 도(鼓), 절고(節鼓), 진고(晉鼓), 축(祝), 어(敵), 관(管), 약(藪), 화(和), 생(笙), 우(竽), 소(簫), 적(箏), 부(缶), 훈(塤), 지(篋), 슬(瑟), 금(琴), 독(蘊), 정(旌), 휘(麾), 조촉(照燭), 순(鎗), 탁(鐸), 요(鏡), 탁(鐸), 응(應), 아(雅), 상(相), 독(贖), 적(翟), 약(藪), 간(干), 척(戚)
2. 唐部樂器	방향(方響), 박(拍), 교방고(敎坊鼓), 월금(月琴), 장고(杖鼓), 당비파(唐琵琶), 해금(奚琴), 대쟁(大箏), 아쟁(牙箏), 당적(唐笛), 당피리(唐피리), 통소(洞簫), 태평소(太平簫)
3. 鄉部樂器	현금(玄琴), 향비파(鄉琵琶), 가야금(伽倻琴), 대금(大琴), 소관자(小管子), 초적(草笛), 향피리(響피리)

〈표 3〉 增補文獻備考에서의 國樂器 分類

1. 金雅部	편종·특종, 순(鎗), 요(鏡), 탁(鐸), 탁(鑄) 俗部 : 방향(方響), 향발(響鈸), 동발(銅鈸)
2. 石雅部	경(磬)
3. 絲雅部	금(琴), 슬(瑟) 俗部 : 현금(玄琴), 가야금(伽倻琴), 월금(月琴), 해금(奚琴), 당비파·향비파, 대쟁(大箏), 아쟁(牙箏)·알쟁(夏箏)
4. 竹雅部	소(簫), 약(箬), 관(管), 적(篋), 지(篋) 俗部 : 당적(唐笛), 대금(大笳)·중금(中笳)·소금(小笳), 통소(洞簫), 당피리(唐피리), 태평소(太平簫)
5. 匏雅部	笙(笙)·우(竽)·화(和)
6. 土雅部	훈(埴), 상(相), 부(缶), 토고(土鼓)
7. 革雅部	진고(晉鼓), 뇌고(雷鼓)·영고(靈鼓)·노고(路鼓), 뇌도(雷鼓)·영도(靈鼓)·노도(路鼓),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俗部 : 절고(節鼓), 대고(大鼓)·소고(小鼓), 교방고(敎坊鼓), 장고(杖鼓)
8. 木雅部	부(拊), 축(祝)·지(止), 어(叟)·진(簞), 응(應), 아(雅), 독(牘), 거(箎)·순(鎗)·승아(崇牙)·수우(樹羽)

打絃으로 나누어지고 3) 타악기에는 金部, 石部, 木部, 土部, 革部로 분류된 악기가 포함되어 有律과 無律로 나누어진다. 또 Hornbostel-Sachs의 악기분류법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國樂器를 분류해 보면 1) 鉉鳴樂器(chordophone; 현울림)에는 거문고, 가야금(伽倻琴), 牙箏, 洋琴, 奚琴 등이 2) 氣鳴樂器(aerophone; 공기울림)에는 대금, 唐笛, 短簫, 통소,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태평소, 笙簧, 喇叭, 螺角, 埴, 지, 약, 적, 簫 등이 3) 體鳴樂器(idiophone; 몸울림)에는 編鐘, 編磬, 징, 팽과리, 자바라, 拍, 特鐘, 特磬, 方響, 축, 어, 缶, 운라 등이 4) 膜鳴樂器(membranophone; 막울림)에는 杖鼓, 龍鼓, 桴鼓, 敎坊鼓, 小鼓, 節鼓, 晉鼓, 路鼓, 노도 등이 있다. 이상의 Hornbostel-Sachs의 4분류법에 Mantle Hood는 오늘날 전기에너지에 의한 도움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인 電鳴(전자울림)樂器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國樂器는 없다.

國樂器의 編成法은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많은 변천이 있었다. 국악기의 편성법은 雅樂에만 국한되었는데, 1910년 이후 궁중의 여러가지 의식에 갖추어 쓰던 연주형태는 무너지고 무대음악으로 형성되면서 편성방법도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편성법에 따른 용어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장사훈, 1969, 151)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사용되는 국악기의 편성에 의한 분류는 1) 合樂 2) 管絃合奏 3) 管樂合奏 4) 絃樂合奏 5) 細樂 6) 竝奏 7) 獨奏 등으로 나뉜다. 또 絲風流, 竹風流, 三絃六角, 三絃合奏 등의 용어도 쓰인다.

따라서 그 편성법에 따른 용어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장사훈, 1969, 151)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사용되는 국악기의 편성에 의한 분류는 1) 合樂 2) 管絃合奏 3) 管樂合奏 4) 絃樂合奏 5) 細樂 6) 竝奏 7) 獨奏 등으로 나뉜다. 또 絲風流, 竹風流, 三絃六角, 三絃合奏 등의 용어도 쓰인다.



## 2. 2 한국음악학과 한국음악학의 체계

音樂學(musicology)이란 음악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의 총칭을 말한다. 따라서 韓國音樂學(Korean musicology)은 한국음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한국음악사전, 1985, 418), 즉 우리의 민족음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민족음악이란 넓은 의미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악활동을 뜻하며,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음악을 가리킨다.(송방송, 1980b, 146) 그리하여 한국음악학의 연구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나갈 한국문화의 한 갈래인 음악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한국음악학이란 과거의 음악문화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문화 현상을 학문 대상으로 연구하는 미래지향적 학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학은 19세기에 이르러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음악학은 일반지식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었다. 음악학이란 용어가 Friedrich Chrysander(1826-1901)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1863년 이후 음악학은 계속 발전하여 왔다. 한국음악학은 그동안 전통음악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견지의 통시적 관점과 전승된 전통음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공시적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노력하면서 오늘날까지 성장하여 왔다.

宋芳松(1980)은 한국음악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편의상 4단계, 즉 첫째, 1945년 해방이전의 제1기로 전통음악이

단편적으로나마 학문의 관심으로 등장되기 시작한 시기, 둘째, 1945-1960년의 제2기로 한국음악학의 뿌리가 서서히 내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이루어서 학문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 셋째, 1960년대의 제3기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되므로써 소위 근대적 학문으로서 한국음악학이 성장해 온 시기, 넷째, 1970년대의 제4기로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한국음악학이 폭넓게 발전해 나간 시기로 나누면서, 한국음악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본격적인 계기는 대학교육기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960년대 부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는 한국음악학이 한국문화의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여 학문적 공헌을 남기고 나아가 세계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창조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음악학은 서구의 음악학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어 새로운 연구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 음악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음악학의 이론 및 연구방법을 익혀 적용하면서 한국음악학의 목적의식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음악학의 영역은 음악학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이들 分科學 역시 시대나 음악학자에 따라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근대적 개념의 음악학의 체계가 조직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885년 Guido Adler(1855-1941)의 논문 “음악학의 목적, 방법 및 그 범위(Umfang, Methode und

Ziel der Musikwissenschaft)"에서 다루어졌으며(Guido Adler, 1885, 5-20)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음악학방법론의 2분법인 체계적 음악학과 역사적음악학이 여기에서 제시되었다. 그 후 Friedrich Chrysander, Philippe Spitta, Hugo Riemann, Glen Haydon, Heinrich Husmann, Hans Moser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음악학의 영역분류가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 서구사회에 있어서의 음악학은 3가지의 큰 분류, 즉 역사음악학, 체계음악학, 응용음악학으로 구분하는데 대체로 일치한다. 이것은 20세기 초 E.M.V. Hornbostel과 K. Sachs를 중심으로 하는 베를린학파의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홍정수, 1992, 278)

한국음악학의 영역(체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어 왔다. 宋芳松(1980)은 한국음악학의 근대 연구동향으로 1)대체로 도서관에 있는 문헌중심의 연구분야로서의 한국음악사학(Korean historico-musicology)과 2)현지답사를 통한 조사자료 중심의 연구분야로서의 한국민족음악학(Korean ethnomusicology)으로 구분, 이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두 분야의 연구영역이 모든 한국민

족음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앞으로 더욱 넓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권오성(1983)은 한국음악학은 한국의 전통 음악 및 현대음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방법에 따라 1)역사적 방법 2)구조 및 기능적 방법 3)인류학적, 민속학적 방법 4)철학적(사상적), 미학적 방법으로 구분, 관련 및 인접학문을 설명하면서 한국음악학은 인접학문과 만나면서 하부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계속 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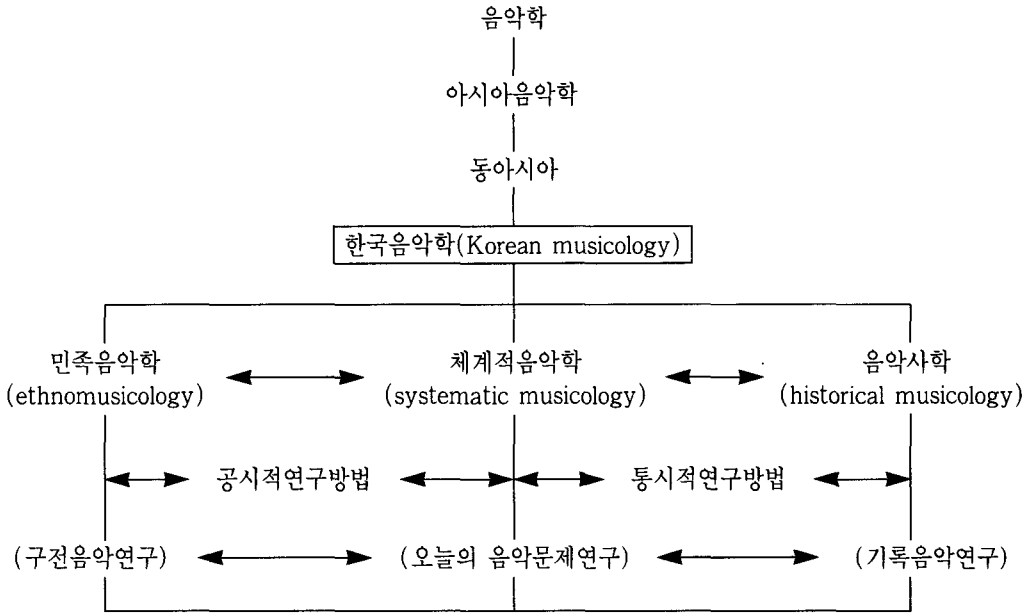
또한 다시 宋芳松(1989)은 음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 세계음악학으로서의 한국음악학에 대하여 1)구전음악을 연구하는 민족음악학(ethnomusicology) 2)기록음악을 탐구하는 음악사학(historical musicology) 그리고 3)현재 한국사회의 음악문제를 연구하는 체계적음악학(systematic musicology)으로 구분, 이 세 갈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표 5>와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송방송, 1989, 41-42)

홍정수(1992)는 한국음악학에 국한시키지 않은 음악학의 연구영역에 대하여 4가지의 방향, 즉 1)음악역사의 연구 2)체계적 음악이론의 형성을 위한 연구 3)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한 음악의 기초연구(음향학, 음악생리학

<표 4> 음악학의 영역 및 분과학

A. 역사음악학	악기학, 화상학(畫像學), 연주실제, 기보학, 문헌학, 전기학(傳記學), 악곡론, 용어학, 양식론
B. 체계음악학	음악음향학, 성대와 청각의 생리학, 악기연주의 생리학, 청취심리학, 음악심리학, 음악사회학, 음악교육학,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악민속학 또는 인류음악학
C. 응용음악학	악기제작, 악곡기초학, 음악비평

〈표 5〉 세계음악학으로서의 한국 음악학



새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 모색 및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표로 삼음.

등) 4)음악에 대한 인간의 사고와 반응에 관한 연구(음악미학, 음악철학 등)를 제시하면서 이중 첫번째의 '음악역사의 연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관심사인 한국 민족음악의 문제가 이상에서 거론된 영역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 한국음악학의 연구영역(체계) 및 이에 따른 각종 분과학들이 보다 넓게 확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의 음악학이 그 사회나 문화의 역사속에서 생성된 그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영역 및 분과학으로 성장, 발전되어 왔듯이, 한국음악학의 영역도 한국사회 및 문화의 역사속에서의 우리의 관심사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성장,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양의 음악학으로 한국의 음악을 학문적으로 다루는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구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음악학의 영역 및 이에 따른 각 분과학에 대한 모든 영역이 앞으로 한국음악학의 연구 영역에 포함되면서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영역 및 분과학은 한국음악학의 발전에 따라 계속 확충되어질 것이다.

### 3. 음악자료의 유형

이론에 실천이 동반되는 음악은 흠을 재료로 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예술

이자 청각예술이다. 따라서 한국음악을 포함한 음악자료는 읽을 수 있는 자료와 들을 수 있는 자료, 즉 印刷(文字)에 의한 기록물과 흡에 의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이 중 인쇄에 의한 기록물에는 음악문헌과 악보가 있고, 흡에 의한 기록물에는 음반, 테이프 등의 음향자료, 즉 녹음자료가 있다.

음악자료에 대하여 Asheim을 비롯한 Coover, Rogers, Blazek와 Aversa 등은 3가지 형태, 즉 음악에 관한 문헌(음악문헌), 악보 및 녹음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Duckles는 이들 음악자료를 크게 2가지, 즉 1) 음악에 대한 인간의 思考에 의해 축적된 기록으로서의 음악문헌(musical literature)과 2) 記譜法에 의한 악보와 흡에 의한 기록물인 녹음자료 형태의 음악 그 자체(music)로 구분하였는데(Vincent Duckles, 1967, 494), 이러한 방법은 몇몇 음악분류표에 적용되어 전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음악자료는 일반적으로 음악관계문헌과 음악자체라 할 수 있는 악보, 그리고 연주에 대한 녹음자료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 고대악기나 시대변천에 따른 오페라 무대장치 등에 대한 사진자료, 작곡가와 연주가의 초상화, 각종 음악프로그램, 주요 음악가들의 편지사본, 초기기보법, 오페라대본, 圖解資料(iconography), 슬라이드, 필름, 초기의 악기 등도 전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 및 교육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유용한 음악자료가 될 수 있다.

음악장서의 핵심을 형성하는 음악문헌, 악보 및 녹음자료는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각 자료의 수는 다른

학문들의 각각의 문헌수 만큼이나 많다. 국내에 있어서도 음악자료의 양은 악보와 녹음 자료를 제외한 예술관계 출판물 중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다.(한국출판연감, 1995, 1996) 또한 이 중 악보는 많은 판들로 발행되기도 하며, 흡에 의한 녹음자료는 다양한 연주자, 매체 또는 편곡 등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그리고 악보와 녹음자료의 발달은 그동안 악보가 없이 전해진 구전음악에 대한 기록 및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상의 음악자료 중 音樂文獻(musical literature)은 음악자체보다는 음악학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의 역사, 이론, 전기, 비평, 사전, 서지, 미학, 음향학 등과 같은 음악의 모든 다양한 면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학문에서와 같이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논문, 총서, 팜플렛, 복사본,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발행된다.

樂譜(score and parts)는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호, 문자, 숫자 등으로 일정한 記譜法에 따라서 紙面上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악보는 청각적이고 순간적인 흡을 可視的으로 제공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모든 음악활동, 즉 음악감상, 교육, 연구의 근거가 되는 1차자료이다. 흡으로 표현되는 음악을 視覺的으로 적어 나타내고자 한 記譜의 연구는 각 나라와 민족이 지닌 음악의 체계와 유형에 적응하여 오랜 옛날부터 시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래해 온 악보가 미비하게 사용되다가 이조시대 초기 세종대왕에 의해 井間譜가 창안되므로써 많은 악곡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보법은 많은 변천을 거

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오늘날 서양음악의 5선기보법이 완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위음악 등 오늘날 음악의 발달과 더불어 악보는 계속 변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樂譜는 크기, 형태 및 版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출판된다. 크기는 대체로 19-35cm로 다양하며, 형태와 版에 있어서도 대형악보, 소형악보, 낱장으로 된 악보, 원래의 연주수단과는 다른 연주용 악보, 편곡악보, 개정 편집된 악보, 파트 뿐인 악보, 발췌곡 악보 등 다양하게 출판된다.(정진홍, 1982, 27) 또한 현대 과학기술에 힘입어 마이크로 폼, 팩시밀리 및 컴퓨터를 통해서도 생산되어 이용하고 있다.(이민정, 1990, 8)

録音資料(sound recordings)는 음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또는 전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한 파의 진동에 대한 기록이다. 녹음자료는 Thomas A. Edison이 음의 수록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이래 계속 발전하여 음악문헌 및 악보와 더불어 특히 음악자료의 중요한 정보자료로 발전하여 왔다. 지금까지 발전된 주요 녹음자료로는 음반과 테이프를 들 수 있다. 음반(disc)은 등근판 위에 파를 기록하여 원래의 생음에 가깝도록 재생시키는 것으로, record·audiocdisc, phonodisc·phonograph record(gramophone record)·phonorecord·simply disc라고도 불리운다(Heartsill Young, 1983, 14). 음반은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계속 발전, 변화되어 왔으며, 그 크기·녹음방식·음의 종류·회전수 등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테이프(tape)는 파를 필요에 따라 테이프에 저장해 두었다가 原音에 가깝도록 재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녹음테이프·audiotape·tape recording(tape record)·phonotape라고도 불리운다(Heartsill Young, 1983, 15). 테이프 역시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계속 발전·변화되어 왔으며, 테이프의 용기·트랙수·릴의 직경·channel수(음의 종류)·연주속도 등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고, 음반에 비하여 녹음과 재생의 반복이 쉽다. 음반 및 테이프와 같이 처음 청각자료만으로 대두된 녹음자료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청각과 시각을 겸한 시청각자료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그 중 필름(film)은 토막진 화상으로 연속된 일련의 필름을 영사기로 스크린에 크게 비추어 거기에 나타나는 영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제작된 것을 말한다. 1927년 미국에서 유성필름이 처음 시도된 이래, 필름은 映像과 音響을 동시에 수록할 수 있게 되므로써 음악자료로서의 가능성을 높여 왔다. 필름 또한 규격과 용기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로 필름과 같이 영상과 음이 함께 기록되거나 TV수상기에 의해서 재생되는 비디오자료가 출현하여 음악자료에서의 영상자료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비디오자료에는 오늘날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videotape)와 1970년 초 독일의 Telefunken社가 처음으로 TED방식을 발표한 이래 오늘날 레이저디스크(laser disc) 및 CD-V식으로 크게 보급되고 있는 비디오디스크(video-disc)가 있다.(김남석, 1994, 135-136) 이 중 특히 비디오테이프는 영상과 음을 동시에 수록할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녹화와 재생의 반복이 가능하여 오늘날 많은 도서관에서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상의 각 자료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계속 새로운 자료(형태)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료 역시 계속 고안될 것이며 음악자료로서의 영역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 4. 도서관에서의 한국음악 분류의 실태와 제문제

현대의 일반 문헌분류법 중 한국음악에 대한 분류전개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인 한국십진분류법(KDC) 뿐이다. KDC에 있어서 韓國音樂은 670 音樂 內에서 679 國樂(Korean music)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DDC, LCC 등 대부분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표준분류표들에는 한국음악에 대한 분류전개가 없다. 김연경(1997)에 의해 편역된 Dewey十進分類法: 東洋關係細分展開表 역시 DDC 제21판의 간략식 번역본으로서 DDC에 전개되지 않은 동양관계세분전개를 하고 있으나, 韓國音樂을 포함한 모든 분류는 한국 국회도서관의 전개표를 위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음악 분야를 취급하는 각종 도서관이나 기관에서는 KDC의 음악분류를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각자 그들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분류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한국음악의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류상의 통일성 문제를 비롯하여 분류전개상의 불합리성, 자료이용상

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오늘날의 한국음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고 음악의 전문지식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음악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합리적인 분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류표들을 분석하므로써 새로운 전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① 한국십진분류표, 제4판 679 國樂 (Korean music)
- ② Dewey 십진분류법 ; 동양관계세분전개표
- ③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 ④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음악분류표 중 KBS 한국전통음악(국악)분류표

이 중 ①은 한국음악의 분류를 전개한 유일한 분류표이고, ②~④는 특히 한국음악 분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도서관 및 각종 기관의 독자적인 분류표로서 새로운 분류전개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4.1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679 國樂 (Korean music)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된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인 KDC는 일반 문헌분류표 중 한국음악을 전개한 유일한 분류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 국립국악원, 정신문화연구원,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원 등 한국음악 자료를 주로 취급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분류표는 1964년 초판이 발

행된 이후 현재 제4판까지 발행되었다. 1996년 발행된 제4판의 679 國樂(Korean music)의 분류전개는 1980년의 제3판과 비교해 볼 때 4개의 주기(notes)가 추가된 것 외에 전혀 변경된 것이 없으며, 총52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자료 중 악보에 대하여는 그 주제하에 분류하도록 한 단일분류표이다. 가장 최근판인 제4판의 전개상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편, 1996, 812-815).

이상의 國樂의 분류는 먼저 國樂理論 및 技法, 聲樂, 唱劇, 諸奏樂, 絃樂器, 吹奏樂器, 打樂器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打樂器는 吹奏樂器 內에 두고 있다. 이것은 國樂分野 전체를 이룬, 성악 및 창극부문에 각각 하나씩의 요목을 배정한 반면, 기악부문에 4개 요목을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분야의 전체적인 구성이 실천위주 특히 연

<표 6> KDC 679 國樂 분야의 분류전개

679 國樂 Korean music	.72 玄琴
樂譜는 그 主題下에 分類한다.	.73 伽倻琴
.07 指導法 및 研究法	.74 鄉琵琶, 唐琵琶
.072 國樂研究所, 國立國樂院	.75 牙箏(아쟁)
.078 演奏會	.76 大箏
.09 國樂史	.77 月琴
韓國國樂史→670.911	.78 奚琴(해금)
.1 國樂理論 및 技法	.79 臥篋篋, 堅篋篋, 手篋篋
.12 樂典	.8 吹奏樂器
樂劇, 樂儀, 樂禮 등을 포함한다.	.81 喇叭(나팔)
.3 聲樂	.82 大笏, 中笏, 小笏
.31 歌唱法	.83 唐笛
.32 歌	.84 鄉피리, 唐피리, 細피리
.33 詞	.85 洞簫, 短簫
.34 詩	.86 箏(악), 箏(적)
.35 民謠, 風謠	.87 篋(지), 簫(소), 太平簫
京畿民謠, 南道民謠, 西道民謠 등을 포함한다.	.88 笙簧(생황)
民謠(文學)→811.4	.889 기타 樂器
.39 기타	塤(훈), 螺角(나각) 등을 포함한다.
.4 唱劇	.89 打樂器 Percussion
판소리를 포함한다. 例: 春香歌, 沈清歌, 興夫歌	.891 鐘
.41 西道唱	編鐘, 特鐘, 方響 등을 포함한다.
.43 南道唱	.892 鐃, 鐃
.5 諸奏樂	.893 鐃, 鐃, 鈴
.51 大禮樂(郊廟樂)	.894 鑼
.52 周頌雅樂	자바鑼(자바라), 雲鑼(九雲鑼, 雲笏) 鉦
辟雍, 饗, 射, 六宗, 社稷, 用樂 등을 포함한다.	大金, 小金 등을 포함한다.
.53 聖明樂, 蒸門鼓吹樂	.895 編磬, 特磬
君臣宴會樂을 포함한다.	.896 鼓
.54 鏡樂(軍樂)	杖鼓, 羯鼓, 龍鼓, 節鼓, 坐鼓, 晉鼓, 建鼓,
凱旋歌를 포함한다.	路鼓, 雷鼓, 靈鼓, 中鼓, 教坊鼓 등을 포함
短簫→679.85	한다.
.59 기타 俗樂, 鄉樂	.897 鼓
散調, 다스림, 農樂, 시나위, 巫樂 등을 포함한다.	路鼓, 雷鼓, 靈鼓 등을 포함한다.
.7 絃樂器	.898 栢(백), 祝(축), 敵(어)
.71 琴, 瑟(슬)	.899 기타 樂器

주중심 그리고 기악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 균형있는 분류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음악의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음악학, 작곡, 합주, 동요, 무용음악, 종교음악 등 전개되지 않은 분야들이 많이 발견된다. 게다가 聖明樂, 蒸門鼓吹樂, 周頌雅樂 등 중국음악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상의 분류전개에 대하여 李輔亭(1975)은 분류방법에 체계가 없음을 인식하고, 한국전통음악의 자료, 악보, 음반, 녹음 등의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음악자료의 십진분류법이 절실히 필요함을 전제, 도서관과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한국음악의 연주장소, 연주계기, 연주자 신분 등에 의한 분류법이나 혹은 악기편성 및 장르에 의한 분류법에 의한 십진분류가 가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분류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國樂의 용어에 대하여 최근에는 韓國音樂이란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다. 1957년 이혜구 박사의 논문집 「韓國音樂研究」에서 한국음악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중앙대학교의 國樂科가 韓國音樂科로 학과명칭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각 문헌과 논문에서 국악보다는 한국음악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음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4. 2 Dewey十進分類法 ; 東洋關係細分展開表

Dewey 십진분류법 ; 동양관계전개표는 DDC 제21판에 대한 간추린 간략식 번역본이

나, 국내에서의 DDC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양관계세분전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국회도서관 전개표를 위주로 전개한 것이다. 특히 음악분야에서는 (789) Composers and traditions of music에서의 3가지 옵션 중 옵션 B(Use 789 and its subdivisions for traditions of music)에 따라 우리의 한국음악을 전개하고 있는데(김연경편역, 1997, 282-283), 역시 국회도서관 전개표를 적용한 것으로 국회도서관의 한국음악전개표가 된다. 이 중 한국음악분야는 총 31항목을 전개하고 있는데, <표 7>과 같다.

이상의 한국음악 분류는 크게 國樂器, 謠, 琴, 歌, 樂, 神樂, 民俗樂 으로 구분 전개하고, 이 중 국악기는 악기의 재료에 의한 8분류법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이상의 6개 대분류 중 謠(막울림)은 Hornbostel-Sachs의 4분류법 중 膜鳴(막울림)악기를 말하며, 한국악기 중에서는 8분류법 중 革部樂器에 해당되는 악기가 주로 포함된다. 따라서 악기분류의 형평성, 중복성 문제가 야기된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음악학, 악기편성에 의한 기악 등 전개되지 않은 부문들이 발견된다.

#### 4. 3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은 한국 전통음악에 관한 제반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한 통일적인 분류법을 마련하고자 199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에 의해 발간된 분류법이



<표 7> Dewey十進分類法 ; 東洋關係細分展開表의 한국음악분류

789	한국음악 Korean music	.2	멤부라노폰 Membranophone
	국악	.3	雅樂
	현대음악→780.903	.31	祭禮樂
.07	연구,지도	.33	宴禮樂
.09	한국음악사	.4	歌樂
.1	국악이론 및 기법	.41	가곡
789.1	國樂器	.5	神樂
.102	樂典	789.53	巫樂
	樂劇, 樂儀, 樂禮	.6	民俗樂
.11	金部樂器	.61	판소리
.12	石部樂器	.63	雜歌
.13	絲部樂器	.64	민요
.14	竹部樂器	.641	경기민요
.15	匏部樂器	.642	남도민요-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16	土部樂器	.643	서도민요-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17	革部樂器	.645	강원도민요
.18	木部樂器	.65	農樂
.19	기타 동양악기		

다.(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편, 1997) 이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장자료 특히 녹음자료 3,395곡에 대한 분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분류법과 함께 이 분류법에 따라 정리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소의 소장자료 외에도 한국 국악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음악에 대한 통일적인 분류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원래 본 분류표는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1040개의 릴테이프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이들을 CD로 복제, CD에 수록된 소악곡을 근거로 DB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분류번호는 십진식분류법에 따라 모든 악곡에 고유코드번호 8개 단위, 즉 000-000-00을 부여하여, 첫번째 000은 한국전통음악의 대, 중, 소 분류를, 다음의 000은 세분류를, 그리고 그 다음의 00은 소악곡명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분류항목에 있어서 대, 중, 소분류에는

138항목 그리고 세분류에는 512항목을 전개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한국음악분류 중 가장 상세한 분류를 전개하고 있다. 이 중 중분류까지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이상의 한국전통음악의 분류는 크게 그 음악어법에 따라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속악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소 소장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회 및 기타 항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분류표의 전개는 먼저 음악의 용도와 기능에 의해 십진식에 따라 10개 분야, 즉 총설,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속악-성악I, 민속악-성악II, 민속악-기악I, 민속악-기악II, 민속악-불교음악, 민속악-무속음악, 연회 및 기타로 구분, 민속악에 6개의 類를 주어 성악, 기악, 불교음악, 무속음악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분류표는 연주 중심의 분류표로서 민속악중심의 분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분류표의 1차 분류대상이 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의 특성과 음악자료 중 주로 녹음자료만을

〈표 8〉 한국전통음악 자료분류법의 중분류

000-000-00	총설	500-000-00	민속악-기악
		510-000-00	산조
100-000-00	궁중음악	520-000-00	시나위
110-000-00	제례악	530-000-00	봉장취
120-000-00	연례악	540-000-00	거상음악
130-000-00	행악	550-000-00	행악
		560-000-00	기타
200-000-00	풍류방음악		
210-000-00	성악	600-000-00	민속악-기악II
220-000-00	기악	610-000-00	농악
300-000-00	민속악-성악	700-000-00	민속악-불교음악
310-000-00	판소리	710-000-00	경제 불교음악(절안 음악)
320-000-00	단가	720-000-00	영제 불교음악
330-000-00	병창	730-000-00	완제 불교음악
340-000-00	잡가	740-000-00	탁발음악
350-000-00	통속민요		
		800-000-00	민속악-무속음악
400-000-00	민속악-성악II	810-000-00	무속음악
410-000-00	경기도	820-000-00	기타
420-000-00	강원도		
430-000-00	충청도	900-000-00	연희 및 기타
440-000-00	전라도	910-000-00	탈놀이
450-000-00	경상도	920-000-00	굿놀이
460-000-00	제주도	930-000-00	민속놀이
470-000-00	평안도	940-000-00	창우집단광대놀이
480-000-00	황해도	950-000-00	남사당놀이
490-000-00	함경도	960-000-00	민속무용
		970-000-00	대답
		980-000-00	기타

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한 듯 하다.

또한 민속악에서의 성악과 기악은 I과 II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類로 전개하고 있다. 이 중 성악의 I과 II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문가에 의해 무대화된 음악과 비전문가에 의해 민간에서 연행되는 음악에 따라, 기악의 I과

II는 현재의 시점이든 과거의 시점이든 전문가에 의해 연행되던 음악과 비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지던 음악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불교음악과 무속음악은 음악어법이 다른 여타 민속음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고려하여 민속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

류표와 이에 따른 소장목록은 그동안 제대로 분류, 정리된 적이 없는 많은 민속악 장르와 거의 소개된 바가 없었던 불교음악의 구체적인 악곡들을 모두 정리한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토속민요·무악·농악과 같이 지역적 분류가 필요한 경우 지역코드의 통일문제 및 각 지역의 나열순서에 대한 재검토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김영운, 1997, 227)

#### 4. 4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음악 분류표

KBS 방송정보센터 음악정보실 음악분류표는 그들의 독자적인 분류표로, 主類는 크게 6개, 즉 중세음악(외국), Classic Music, 전통음악(외국), Light Music, 국내음악, 합집으로 구분하여 내용에 따라 綱, 目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중 국내음악은 9개의 綱, 즉 대중가요('60년대 이후), 옛가요('50년대 이전), 국민가요, 국악, 가곡, 동요, 캐롤, 찬송가, 기타, 합집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악은 이와 같이 국내음악에서 하나의 綱으로 전개하여 별도로 세분 전개시킨 "KBS 한국전통음악(국악) 분류표"로서 細目까지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정악-기악, 정악-성악, 민속악-기악, 민속악-성악(판소리 제외), 민속악-판소리, 종교음악, 창작국악, 기타, 합집으로 구분하여 총59항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표 9>와 같다.

이상의 國樂의 분류는 정악, 민속악, 종교음악, 창작국악, 기타, 합집으로 구분하여, 이 중 정악과 민속악은 음악의 연주에 있어서의

표현매체에 따라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속악에서는 판소리를 성악 내에서 취급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분류표에서와는 달리 연주부문에서 먼저 발생한 성악을 後位에 두고 있다. 음악자료에 대하여는 음악문헌, 음반, 테이프 등 모든 자료의 분류를 위한 단일 분류표이다. 따라서 음반과 테이프는 규격에 따라 음반은 12"와 10", 7" 및 CD로 3구분, 테이프는 2400ft(R), 1200ft(R)와 600ft(R), Cassette 및 DAT로 4구분하여 고유번호를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분류표는 음악분야 중 특히 연주중심의 분류표로 방송국의 특성상 연주된 음반, 테이프 등의 시청각자료(녹음자료)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표의 적용방법은 분류번호-정리번호로 구성되는데 분류번호는 4개 숫자(자료구분, 규격구분, 내용구분-類, 내용구분-綱)로, 정리번호는 같은 분류에 해당되는 자료의 수 일련번호로서 5개 숫자로 구성된다. 또한 편곡에 대해서는 1) 전통음악 고유의 형식으로 편곡된 것은 국악 내에서 연주형식에 따라 2) 현대 감각의 양악형식으로 편곡된 것은 국내음악의 해당 구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5. 한국음악자료 분류의 새로운 전개

다음은 제2-4장에서 살펴본 한국음악과 한국음악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표 9〉 KBS 한국전통음악 분류표

5040	국악		
5041	정악-기악		
	1. 합주곡	8. 기타	
	2. 중주곡	9. 합집	
	3. 독주곡		
5042	정악-성악		
	1. 가곡	8. 기타	
	2. 가사	9. 합집	
	3. 시조		
5043	민속악-기악		
	1. 산조, 다스름	4. 민요(기악)	
	2. 시나위	8. 기타	
	3. 농악	9. 합집	
5044	민속악-성악(판소리 제외)		
	1. 민요	5. 단가	
	2. 잡가	8. 기타	
	3. 입창	9. 합집	
	4. 병창		
5045	민속악-판소리		
	1. 춘향가	4. 수궁가	7. 신작판소리
	2. 심청가	5. 적벽가	8. 기타
	3. 흥보가	6. 창극	9. 합집
5046	종교음악		
	1. 무악(巫樂)	8. 기타	
	2. 범패	9. 합집	
5047	창작국악(작곡가 분명, 국악악기 위주로 연주, 연주형식이 새로운 작품)		
	1. 기악-합주	5. 성악-중창	
	2. 기악-중주	6. 성악-독창	
	3. 기악-독주	8. 기타	
	4. 성악-합창	9. 합집	
5048	기타		
	1. 토속민요(채집)	4. 무용음악(반주용)	
	2. 민속극	8. 기타	
	3. 민속놀이(실황)	9. 합집	
5409	합집		

음악자료의 유형과 현행 주요 한국음악 관련  
 분류표의 전개 및 장단점 등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한국음악 분야의 분류표를 마련해 보  
 고자 한다.

#### 5. 1 분류의 전개원칙과 방법

본 연구의 결론이 될 새로운 한국음악분류

표 전개를 위한 원칙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 보편 타당성을 갖는 분류표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악 및 한국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분류표를 제시하고자 본 논문의 앞서 언급한 내용외에 한국음악 관련 사전, 개론서 및 통론서 등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적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세계 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분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종 한국음악 활동 및 연구의 발전으로 날로 증가하는 한국음악 관련 자료에 대한 조직 중 기초작업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분류체계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게다가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음악을 바르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시급한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의 한국음악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검색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의 분류가 요구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음악분류표들 역시 참고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음악에 관한 각종 다양한 자료를 융통성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음악을 포함한 음악자료는 다른 주제분야와 달리 음악문헌을 비롯 악보, 녹음 및 영상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자료의 형태와 이에 따른 내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분류를 전개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분류표에서는 음악자료 중 음악주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문헌

을 중심으로 한 단일분류표로서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별도로 악보 및 녹음자료세분표를 전개하여 음악자료 유형에 따른 기호를 분류기호 앞에 덧붙이거나 표준구분과 조합함으로써 음악의 각종 다양한 자료를 수용, 구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넷째, 새로운 분류표의 전개범위는 최대한 類·綱·目까지로 한정하고, 類에 따라서는 綱까지만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목이하의 전개는 전문 한국 음악가 및 음악학자들의 충분한 자문과 협의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 類의 분류는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분류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에 의한 일반 음악분야 분류표(한경신, 1994, 164-173)를 토대로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綱과 목의 분류는 선정된 類의 항목을 중심으로 제2, 4장에서 살펴본 한국음악과 한국음악학 및 현행 주요 한국음악 관련 분류표들의 장단점 그리고 각종 한국음악 관련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다섯째, 助記性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음악 주제에 적절한 조기성기호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개될 조기성기호표는 음악 및 한국음악의 주제와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구분, 지리구분 및 연대구분을 전개하도록 한다. 이 중 지리구분과 연대구분은 한국음악 분류의 특성상 한국의 지리구분과 연대구분이 될 것이며, 분류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조기성기호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본표에 함께 전개하고자 한다.

여섯째, 새로운 분류표에 사용될 분류기호는 분류기호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는 아라비

이숫자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십진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음악문헌이 외의 악보나 녹음 및 영상자료 등은 음악자료의 유형에 따른 세분표를 통해 기본 분류기호 앞에 해당 문자가 첨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類나 綱의 구분지가 9개 이상이 될 경우는 백진식을

병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을 한국음악의 분류내용 구분에 두었기 때문에 분류기호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 5. 2 한국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표

〈표 10〉 한국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표

<p>000 한국음악(일반) Korean music (General) 표준구분표에 의해 구분한다. Divide by standard divis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 철학 및 이론 Philosophy and theory</li> <li>-02 잡저(雜著) Miscellany</li> <li>-03 백과사전, 사전 Encyclopedias, dictionaries, concordances</li> <li>-04 수필집, 강연집 Essays, lectures</li> <li>-05 연속간행물 Serial publications</li> <li>-06 학회, 협회, 각종 기관 Societies, associations, related organizations</li> <li>-07 교육, 연구 Education, research</li> <li>-08 총서, 전집 Series, collected works</li> <li>-09 역사, 지리 Historical, geographical treatment</li> </ul> <p>010 음악이론 Theory of music</p> <p>020 음악사/한국음악사 History of music/History of Korean music 특정지역의 음악사를 포함한다. Including music in particular localities 연대구분 및 지역구분에 의해 구분</p>	<p>한다. Divide by chronological divisions and geographical divis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향악의 형성과 발전시대 Period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yangak</li> <li>(7c) 향악의 전성시대 Golden period of hyangak</li> <li>(10c) 당악·아악의 수용시대 Period of adoption of tangak and aak</li> <li>(14c) 아악의 정비시대 Period of consolidation of aak</li> <li>(16c) 민속악의 새 양상시대 Period of new minsogak</li> <li>(19c) 양악의 수용시대 Period of adoption of western music</li> <li>(194) 민족음악의 모색시대 Period of groping of Korean musi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 함경도 Music of Hamgyung-do</li> <li>-02 양강도 Music of Yanggang-do</li> <li>-03 자강도 Music of Chagang-do</li> <li>-04 평안도 Music of Pyongan-do</li> <li>-05 황해도 Music of Hwanghae-do</li> </ul>
--	--

-06 경기도 Music of Kyonggi-do		악해석학, 음악현상학, 음악기호
-07 강원도 Music of Kangwon-do		학, 음악윤리학, 음악이론의 이론,
-08 충청도 Music of Chungchung-do		음악분석론 등을 포함한다.
-09 경상도 Music of Kyongsang-do	130	응용음악학 Applied musicology
-10 전라도 Music of Cholla-do		음악비평, 악기제작(악기학), 음
-11 제주도 Music of Cheju-do		반학, 연주이론, 음악감상, 음악요
030		법(음악치료) 등을 포함한다.
040 인물.전기 Persons in music. Bio-	140	
graph	:	
지역구분 및 연대구분에 의해	200	작곡(창작) Composition
구분된다. Divide by geo-	210	작곡(일반) Composition(General)
graphical divisions and	220	작곡기법 Techniques of Com-
chronological divisions		position
050 음악 교육/교육 방법 Instruc-	230	편곡 Arrangements
tion/Teaching methods of music	240	관현악법(악기편성) Orchestration
060 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of	250	반주 Accompaniment
music	260	창작 한국음악 Created Korean
070		music
080 다른 주제 및 학문과 관련된 음악	261	성악 Vocal music
Music in relation to other subjects of	262	기악 Instrumental music
disciplines	263	기타 Other
090 데이터처리. 컴퓨터적용 Data	:	
processing. Computer applications	270	
100 한국음악학/한국음악이론 Korean	:	
musicology/Theory of Korean music	300	성악 Korean vocal music
110 역사음악학 Historical musicology	310	이론 및 기술 Theory and tech-
음악역사철학, 음악편사학, 음악사		nique
기술, 음악사료, 음악문헌학, 기보	320	정악(正樂) Jungak
법 등을 포함한다.	321	가곡(歌曲) Kagok
120 체계음악학 Systematic musicology	322	가사(歌詞) Kasa
음악음향학, 음악생리학, 음악심	323	시조(時調) Sijo
리학, 음악사회학, 음악교육학, 음	324	기타 정악 Other
악철학, 음악미학, 종족음악학, 음	:	

- |      |   |      |                                       |
|------|---|------|---------------------------------------|
| 330  | 민속악 Minsogak  |      | 鼓·靈鼓, 柷, 祝, 敔 등을 포함한다.                |
| 331  | 판소리 P'ansori  | 4040 | 기타악기 Other instruments                |
| 332  | 단가 Tan'ga   | 4050 | 병주(竝奏) Byungju                        |
| 333  | 병창 Pyōngch'ang  | 4060 | 세악(細樂) Seak                           |
| 334  | 잡가(雜歌) Chapka   | 4070 | 삼현육각(三絃六角) Samhyon<br>yuggak          |
| 335  | 민요 Minyo  | 4080 | 대풍류(管樂合奏) Taep'ungnyu                 |
|      | 지역구분에 의해 구분한다.  | 4090 | 줄풍류(絃樂合奏) Chulp'ungnyu                |
|      | Divide by geographical divi-<br>sions   | 4100 | 합악(管絃合樂) Hapak                        |
| 337  | 기타 민속악 Other  | 4110 | 농악(農樂) Nongak                         |
| :    |   | 4120 | 취타·대취타(大吹打) Ch'wit'a·<br>Taech'wit'a  |
| 340  |   | 4130 | 기타 편성음악 Other                         |
| :    |   | 500  | 극음악 / 창극 Dramatic music               |
| 400  | 기악 Korean instrumental music  | 510  | 극 음악 (일반) Dramatic music<br>(General) |
| 4000 | 기악(일반) Instrumental music<br>(General)  | 520  | 창극(唱劇) Ch'angguk                      |
| 4010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Chor-<br>dophones)  | 530  | 영화음악 Film music                       |
|      | 琴·瑟, 玄琴, 伽倻琴, 鄉琵琶·唐<br>琵琶, 牙箏, 大箏, 月琴, 奚琴, 臥<br>箏篋·堅箏篋·手箏篋 등을 포<br>함한다.           | 540  | 방송음악 Broadcasting music               |
| 4020 | 관악기 Wind instruments(Aero-<br>phones)   | 550  | 극장음악 Theater music                    |
|      | 喇叭, 大笳·中笳·小琴, 唐笛, 鄉<br>피리·唐피리·細피리, 洞簫·短<br>簫, 簫, 篳, 簫, 太平簫, 笙簧,<br>埙, 螺角 등을 포함한다. | 560  | 무용음악 Dance music                      |
| 4030 | 타악기 Percussion instruments<br>(Membranophones, Idiophones)                        | 570  | 기타 극음악 Other                          |
|      | 編鐘, 特鐘, 方響, 鈸, 鐃, 鐃, 鐃,<br>鈴, 자바록, 雲록, 大金·小金,<br>編磬·特磬, 각종鼓, 路鼓·雷                 | :    |                                       |
|      |   | 600  | 종교음악 Sacred music                     |
|      |   | 610  | 종교 음악 (일반) Sacred music<br>(General)  |
|      |   | 620  | 제례음악 Chereak                          |
|      |   | 621  | 문묘제례악 Munmyo cheryeak                 |
|      |   | 622  | 종묘제례악 Chōngmyo cheryeak               |
|      |   | 623  | 경모궁제례악 Kyongmogung<br>cheryeak        |
|      |   | 624  | 시나위 Sinawi                            |
|      |   | :    |                                       |



630	무속음악 Musog music	710	대중음악 Popular music
631	무속음악. 무악(巫樂) Muak	720	민속무용음악 Korean dance music
632	기타 무속음악 Other		
:		730	놀이음악 Play music
640	불교음악 Buddhist music	731	탈놀이 T'alnoli
641	범패(梵唄) Pŏmp'ae	732	굿놀이 Kuknoli
642	화청(和淸) Hwach'ŏng	733	민속놀이 Minsognoli
643	찬불가(讚佛歌) Buddhist hymn	734	창우집단광대놀이 Ch'angwo-giptankwangtaenoli
644	기타 불교음악 Other Buddhist music	735	남사당놀이 Namsatangnoli
:		736	사물놀이 Samulnoli
650	기독교음악 Christian music	:	
:		740	동요 Children's song
700	기타 한국음악 Other Korean music		

〈표 11〉 악보 및 녹음자료세분표

S	Score and parts
A	Audiorecord (Disc, Record, Phonodisc, Phonorecord)
A1	SP (Standard playing)
A2	LP (Long playing)
A3	EP (Extended playing)
A4	CD (Compact disc)
A5	MD (Mini disc)
B	Audiotape (Tape, Tape recording, Phonotape)
B1	Reel tape. Open reel tape
B2	Cartridge tape
B3	Cassette tape
B4	DAT (Digital audio tape)
C	Film, Motion picture
C1	Roll film
C2	Cassette film
C3	Cartridge film
D	Videotape
E	Videodisc
E1	Laser disc
E2	CD-V (CD-Video)

## 6.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는 먼저 한국음악과 한국 음악학 및 음악자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KDC를 비롯한 한국음악 관련 주요 분류표들의 전개상황과 전개상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류표는 오늘날 한국음악 분야를 다룬 분류표로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들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한국음악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분야 분류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한국음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분류표의 전개원칙과 방안을 설정하여 분류표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전개한 한국음악분야 분류표의 전개 원칙과 전개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편타당성과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인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분류표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한국음악에 관한 각종 다양한 자료를 융통성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음악과 한국음악학 및 음악자료의 유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음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동시에 주요한 한국음악 관련 분류표들의 전개상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우리만의 한국음악이 아닌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전개하기 위해 일반 음악분류표들 역시 참고하였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음악자료를 수용하기 위해 표준 구분표와 악보 및 녹음자료세분표를 전개, 본표와 조합하거나 분류기호 앞에 별치기호를 덧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새로운 분류표의 전개범위는 최대한 類·綱·目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類의 성격에 따라 綱 혹은 目까지 전개되었다. 그 이하의 분류전개는 한 개인 연구자의 연구로는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助記性を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음악 주제와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구분, 지리구분 및 연대구분을 전개하였다. 이들 조기성기호표는 분류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조기성기호표를 필요로 하는 분류항목의 본표에 함께 전개하였다. 또한 각종 다양한 음악자료를 수용하고자 마련한 악보 및 녹음자료세분표는 본표 뒤에 별도로 전개하였다.

셋째, 類의 구분은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세계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을 분류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에 의한 일반 음악분야 분류표(한경신, 1994, 164-173)를 토대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음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알려진 기존의 주요 분류표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토대로 음악분야의 새로운 분류표를 전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류표에서는 여기에 한국음악의 특성을 감안하여 類의 구분을 8개, 즉 한국음악(일반), 한국음악학/한국음악이론, 작곡(창작), 성악, 기악, 극음악/창극, 종교음악, 기타 한국음악으로 분류하여 십진식으로 전개하였다.

넷째, 綱과 目的의 구분은 확정된 類의 항목에 따라 본문에서 살펴본 한국음악 및 한국음악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 주요 한국음악 관련 분류표들의 장단점, 그리고 각종 관련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전개하였다. 이 중 000 한국음악(일반)은 어떤 특정한 지식구분에도 해당되지 않는 總類의 성격의 영역으로 한국음악에 관한 접근방식과 쓰여진 형식 또는 표현형식에 따라 구분하였다. 100 한국음악학/한국음악이론은 지금까지 세계의 여러 음악학자들과 한국음악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의견을 통합 전개하였다. 200 작곡(창작)은 한국음악의 연구대상이 주로 이미 존재한 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창작 한국음악의 분류를 위하여 순수한 작곡분야와 연주를 위한 작곡부분을 포함, 전개하였다. 300 성악은 한국음악에서의 성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 성악음악에서 큰 성악음악 순으로 전개하였다. 400기악은 기악음악의 발생순서에 따라 작은 기악음악에서 큰 기악음악 순으로 전개하되,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3분법의 악기구분에 의한 음악과 편성에 따른 한국의 기악음악을 전개하였다. 500 극음악/창극은 劇的인 내용을 담은 음악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창극과 현재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극음악을 전개하였다. 600 종교음악은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하고, 개화기 이후에 종교음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기독교음악을 포함하여 전개하였다. 700 기타 한국음악에서는 하나의 類로 구분되기에는 미진한 음악 즉 대중음악·민속무용음악·놀이음악·동요 등

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앞으로 각 음악의 발달에 따라 하나의 類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기성기호표는 助記性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음악 주제와 음악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구분·연대구분·지역구분을 전개하였으며, 분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들 구분표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본표에 함께 전개하였다. 이 중 표준구분은 도서의 쓰여진 형식과 자료의 유형에 따른 구분으로서 주로 KDC의 표준구분을 토대로 하였다. 또한 연대구분과 지역구분은 한국음악의 시대와 특정지역에 따른 것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宋芳松에 의한 한국음악사의 구분과 현재의 남북한 행정구역 중 수도인 서울과 평양을 제외한 각 도로 전개하였다.

여섯째, 악보 및 녹음자료세분표를 본표와 별도로 전개하여 음악자체인 악보와 흡을 기록한 방법에 따른 각종 자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음악자료의 유형을 토대로 악보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상용화되어온 각종 녹음 및 영상자료를 전개, 별치기호를 분류기호 앞에 덧붙이도록 하므로써 각종 다양한 음악자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본 한국음악 분야의 새로운 분류표는 시안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따라서 계속 검토·비판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음악과 한국음악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기존 분류표들의 한국음악 전개 및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KDC의 한국음악분야 개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편. 1997. 한국 전통음악 자료분류법. 서울 : 국립문화재연구소.

권오성. 1983. "韓國音樂學 研究와 隣接學問과의 關係."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 51-61.

金南碩. 1994. 非圖書資料:整理의 理論과 實際, 改訂增補版.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연경 편역. 1997. Dewey十進分類法;東洋關係細分展開表. 서울 : 金文書籍.

김영운. 1997. "전통음악 분류와 자료화의 금자탑." 韓國音樂史學報 19 : 225-227.

金鍾洙 譯註. 1994. 譯註增補文獻備考:樂考, 上. 서울 : 國立國樂院.

김종수. 1970. "현존국악의 분류." 교육경남 44 : 154-155.

김춘미. 1997. 한국음악학의 사회사적 구조 : 70, 8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1. 악학레범.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박인혜. 1984. 現行 正樂의 樂器編成法에 관한 研究.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대웅. 1996. "傳統音樂의 時代的 變化와 國樂器改良." 韓國音樂史學報 16 : 102-104.

宋芳松. 1993. "音樂研究의 理論的 可能性." 人文研究(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1) : 283-299.

———. 1989. 韓國音樂學序說. 서울 : 世光音樂出版社.

———. 1987. "한국근대음악사의 새로운 이해; 개항 이전의 음악적 상황을 중심으로." 음악예술 20 : 38-41.

———. 1985. "한국음악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試論." 예술과 비평 8 : 99-115.

———. 1984. 韓國音樂通史. 서울 : 一潮閣.

———. 1983.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 試論." 민족문화논총 5 : 167-183.

———. 1982. 韓國音樂史研究. 대구 : 영남대 출판부.

———. 1980a. "음악학과 민족음악학의 역사적 개관." 한국문화인류학 12 : 53-68.

———. 1980b. "韓國音樂學의 成長過程과 當面課題." 민족문화연구의 방향. 대구 : 영남대학교 출판부 : 145-172.

音樂大事典. 1982. 서울 : 世光音樂出版社.

이강숙. 1990. 한국음악학. 서울 : 민음사.

李輔亭. 1975. "韓國傳統音樂資料의 十進分類方法論." 문화재 9 : 41-49.

이민정. 1990. 악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 이성천. 1985. 음악통론과 그 실습. 서울 : 음악예술사.
- 張師助. 1991. 國樂大事典.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 1986. 韓國音樂史. 서울 : 世光音樂出版社.
- . 1969. 韓國樂器大觀. 서울 : 韓國國樂學會.
- 鄭鎭鴻. 1982. 음악도서관의 전문봉사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관. 1994. “국악 CD음반 분류를 위한 시안 I 과 현황 및 목록.” 한국음반학 4 : 435-450.
- 최 헌. 1995. “ ’94년도 국악계 학술활동 분석.” 국악연감. 서울 : 국립국악원 : 313-331.
- 韓敬信. 1994. 音樂分野의 새로운 分類表 展開에 관한 研究.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韓國國樂學會 編. 1966. 韓國國樂器圖說. 서울 : 東新文化出版社.
-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1996.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全2卷.
- 韓國音樂事典. 1985. 서울 : 大韓民國 藝術院.
- 한국출판연감. 1995, 1996.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 홍정수. 1992. “음악학.” 음악과 민족 3 : 274-289.
- 홍정수, 조선우 편저. 1990. 음악은이 1.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Adler, Guido. 1885. “Umfang, Methode und Ziel der Musikwissenschaft.” Vierteljahres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 1 : 5-20.
- Asheim, Lester. 1957. The Humanities and the Library :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evaluation and use of library materials. Chicago : ALA.
- Coover, James B. 1966. “Materials of a Music Library.” In Carol June Bradley ed. Manual of Music Librarianship. Ann Arbor, Michigan : Music Library Association : 1-6.
- Duckles, Vincent H. 1967. “ Music Literature, Music, and Sound Recordings.” Library Trends 15 (3) : 494-521.
- Grout, Donald J. and Palisca, Claude V. 1988. A History of Western Music, 4th ed. New York : W.W.Norton.
- Hornbostel, Erich M. 1933. “ The Ethnology of African Sound-instruments.” Africa Vi(2) : 129-157.
- Hornbostel, Erich M. and Sachs, Curt. 1914.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 ; ein Versuch.” Zeitschrift für Ethnologie 4(5) : 553-590.
- Wachsmann, Klaus. 1980. “Instruments, classification of, Appendix by

Erich M. Hornbostel and Curt Sachs.” In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Vol.9 : 237-245.

Young, Heartsill.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